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송호빈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곤



화순 박순철

## 화순군, 소규모 원예 농가 '폭염 예방 시설' 지원한다

### 소규모 시설원에 현대화 사업 14일까지 접수

화순군이 폭염을 대비해 소규모 시설원에 농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원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동선별·공동출하 조직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 국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소외된 소규모 시설원에 농가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군은 소규모 시설원에 현대화 지

원 사업을 위해 본예산 3억 원, 추경예산 3억 원을 편성해 총 6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 사업을 통해 하우스 필름, 천창 개폐 시설 등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로 시설 하우스 신축, 전기 난방기, 차광 시설 등 소규모 농가

원 사업을 확대했다. 군은 지원 사업이 농가 경영비 절감,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시설원에현대화 사업 희망 농업인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14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에(379-3641)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 진도군, 어미 낚지 방류 사업 실시

5,000여마리 방류...수산자원 회복 및 어민 소득증대



진도군이 지난 11일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6,000만원을 들여 성숙된 어미 낚지 5,000여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기후온난화 등으로 수온이 상승에 따른 어장환경변화와 수산업의 여건 악화 등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과 자원회복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낚지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방류한 낚지는 전남해양수산기술원 목포지원에서 성숙도 검사를 마친 알을 60%이상 품은 암컷 2,500마리와 수컷 2,500마리를 3일간 합방 교잡한 후 방류해 어업인의 소

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류는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앞 바다에서부터 고군면 뒤쪽 바다 부근 3km에 걸쳐 넓은 해역에 방류했다.

낚지 산란기는 5월, 6월로 갯벌이나 조간대 하부에서부터 수심 100m 깊이에서 서식하며 6월은 방류된 낚지가 갯벌에서 부화할 때까지 포획을 금지하는 금어기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수산식품담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방류 사업을 실시해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어장을 만들고 진도군의 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수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4월 경에 3,6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임회면 죽림리와 조도면 서거차도·맹골도 등 해역에서 전복 치패 6만여마리를 방류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담양군-광주시관광협회, 국·내외 관광객 유치 위해 맞손

### 업무협약 체결...관광 상품 공동 개발 추진



담양군은 지난 10일 광주시관광협회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담양군과 광주시관광협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개최하는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기간 중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이후 상호간의 관광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사업 ▲우수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 ▲담양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정책 수립 정보제공 ▲캠부어, 세일즈플, 기타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협력 등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광주시관광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중 관광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명 기자

## 무안군, 양파 산지폐기 농가 자담 12억원 전액 지원

무안군은 양파 과잉생산 및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농가들의 산지폐기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가 자담 20%인 12억 원 전액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금년 양파는 작황이 좋고 수요일 다 생산량이 워낙 많아 가격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 폭이 너무 커 군에서도 가격안정 및 소비 촉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조생종 및 중만생종을 포함한 총 5차례에 걸친 양파 2945ha(18,174톤) 산지폐기로 그 비용만도 6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중 농가가 부담하는 자담이 20%인 12억 원이다. 이에 가격하락으로 이종고를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군에서는 농가 자담 12억 원 전액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지폐기 준비 부담금 15억 원과 수출물류비 8억 8천만 원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위해 2012년부터 예치를 시작해 2019년 6월 현재 60억 원을 준비로 예치했다. 양파 가격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군에서는 2월 1일부터 양파소비촉진 및 팔이주기 운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곡성군, 대평지구 지적제조사사업 완료



곡성군은 곡성을 대평지구 832필지(361.311.3㎡)에 대한 지적제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공고했다.

곡성을 대평지구 2017년에 지적제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그동안 지적제조사측량,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 및 주민 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지적제조사를 완료했다. 완료된 지적제조사 관련 서류는 곡성군청 민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적공부 정리로 인해 건물 저축 등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주민 간 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완료 계기로 곡성군에서는 지복, 건물현황 등 최신정보를 수록된 액자형 지적 현황도를 제작할 계획이

다. 제작된 현황도는 마을회관에 비치될 예정이라고 하니 토지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사업지구인 오곡면 덕산지구와 죽곡면 당동지구는 현재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장흥군, 서울국제관광박람회서 관광객 유치

장흥군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2019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에 참가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나섰다.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관광박람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장흥군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한 이벤트, 관광객 참여 체험 행사 등을 운영했다. 장흥9경9999 사진 전시, 홍보용 기념품 및 관광리플릿 배부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오는 7월26일부터 8월1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4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장남진 장흥 물축제'의 사전 홍보에도 공을 들였다.

장흥=송호빈 기자

## KBS전국노래자랑 25일 여수서 녹화

KBS전국노래자랑이 4년 만에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를 다시 찾는다. 여수시는 이달 25일 오후 1시부터 박람회장 주재관 특설무대에서 KBS전국노래자랑 공개녹화가 열린다고 밝혔다. 국민 MC 송해가 진행을 맡고, 태진아, 박유천, 금잔디, 류기진, 이조아 등이 초대가수로 나선다. 노래, 춤, 개개인 등을 두루 갖춘 여수 시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

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구비서류를 이메일(juk1647@kbs.com)로 접수하거나 시청 관광과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예심 당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방문 접수처에 구비되어 있으며,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예심은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여수문화회에서 1차 무반주, 2차

노래방 반주로 진행한다. 본선 진출은 15팀(명) 내외가 될 예정이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명), 우수 1팀(명), 장려상 1팀(명), 인기상 2팀(명)을 선발한다. 녹화영상은 8월 중 KBS 1TV에서 일요일 낮 12시 10분에 방영한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여수를 전국에 홍보하고 시민 행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

영로우 시티 장성군

장성군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